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한국은 종합 4위”

문체부, 제5차 평창 대회 국민 여론조사 결과... 관심도 45%로 상승·직접 보겠다는 사람은 5%

국민의 70% 이상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한국의 종합 4위 목표 달성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올림픽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국민은 여전히 적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 9일 15~7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밝혔다.

응답자의 16.5%는 대회가 '매우 성공할 것' 53.9%는 '성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20.9%가 응답을 유보한 가운데 7.7%는 '우려', 1.0%는 '매우 우려'라는 답을 내놨다. 응답자의 70.4%가 성공을 전망한 셈이다. 3월 1차 조사 당시 55.1%, 5월 2차 조사 62.9%, 7월 3차 조사 63.8%, 9월 4차 조사 66.8%보다 높아진 수치다.

한국 선수단은 인방에서 열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따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 71.4%가 이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불가능하다는 응답자 7.8% 중 33.8%는 종합 10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불만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올림픽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45.1%가 평창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9월 4차 조사 당시 39.9%보다 5.2% 상승한 수치다.

3월 조사 이후 가장 높다



관심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5.9%에 불과하다.

동계패럴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월 4차 조사 당시 22.9%보다 5% 증가한 27.9%로 조사됐다.

이 역시 3월 1차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응답자 중 44.0%가 평창올림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15.5%가 평창올림픽이 '매우 기대된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29.1%가 '약간 기대된다'는 반응이었다. 기대 안 된다는 응답자는 17.4%였다.

반면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는 적었다.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겠다는 응답자는 5.1%(복수응답 가능)에 그쳤다. 9월 4차 조사 당시 7.1%보다 2%가 낮아졌다.

88.4%가 중계를 통해 TV로 경기를 시청하겠다고 했고, 방송·언론을 통해 뉴스로 소식을 접하겠다는 응답자가 54.5%였다.

거리 단체 음원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2.2%였다.

문체부는 "최근 부각된 개최 지역의 비

싼 숙박비 등 부정적 논란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조직위의 대책 마련을 통한 현지 숙박비 안정화 추세와 경강선 고속철도(KTX) 개통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전했다.

국민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키워드는 '외국여왕' 김연아였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강철비' 개봉 6일째 200만명 ↑

영화 '강철비'(감독 양우석)가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넘어섰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강철비'는 전날 1350개관에서 5800회 상영, 22만7658명이 봐 누적 관객수 200만명을 넘겼다(209만289명). 이날 매출액은 16억8000만원(누적 매출액 166억원), 매출액 점유율은 63.5%였다.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2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강철비' 포함 모두 16편이다.

다만 '강철비'의 흥행세는 '신과 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이 이날 개봉함에 따라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철비'는 20일 오전 8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5만16070명을 기록하며 '신과 함께-죄와 벌'(22만4464명)에 크게 뒤진 예매 순위 2위를 유지 중이다.

일주일 뒤인 27일에는 높은 완성도로 호평받은 영화 '1987'도 관객을 만날 예정이어서 '강철비'의 흥행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작품은 2013년 데뷔작 '변호인'으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양우석 감독의 신작이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한반도가 제2의 한국전쟁을 향해 치달는 이야기를 그렸다.

정우성은 부상당한 '북한 권력 1호'를 데리고 남하한 정찰총국 정예요원 출신 '엄철우'를, 박도원은 '엄철우'와 함께 전쟁을 막기 위해 나서는 남한 외교안보수사대원 '곽철우'를 연기했다.

/뉴스1

이번엔 스페인 섬에서... '윤식당' 내달 5일 첫 방송



윤식당이 이번엔 스페인에서 열린다.

다음 달 5일부터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윤식당'(연출 나영석)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지난 시즌 인도네시아 발리 인근 섬에서 식당을 열었던 윤여정·이서진·정유미, 그리고 이번엔 새롭게 합류한 박서준은 새 시즌에서 스페인 한 섬에서 식당을 연다.

제작진은 19일 "이번 '윤식당'에서는 정신없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소도시에서 시작하는 색다른 일상을 담을 계획이다. 누구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한적한 곳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려는 꿈을 꾸곤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시즌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촬영지인 테네리페 섬은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며, 행운의 섬으로 알려진 곳"이라며 "작지만 중세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에서 윤여정·이서진·정유미·박서준이 작은 한식당을 내고 현지인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1

오승환, 내년도 58 1/3 이닝 평균자책점 3.39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 예상 성적 공개... 대체선수대비 승리 기여도 1.1

메이저리그(MLB) 잔류를 바라고 있는 오승환(35)이 내년 시즌 올해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야구 예측시스템인 ZIPS(Szymanski Projection System)로 예측한 2018년 메이저리그(MLB) 각 구단 선수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20일(한국시간)에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이던 선수들의 성적을 예측했다. 오승환은 지난해와 올해 세인트루이스에서 뛰 후 자유계약선수(FA)가 돼 새 팀을 찾았지만 ZIPS는 오승환이 내년 시즌에도 세인트루이스에서 뛰는 가장 하에 예상 통계를 내놨다.

오승환은 60경기에 등판해 58 1/3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 3.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63개 탈삼진을 기록하는 반면 볼넷은 14개만 내주고, 91닝당 탈삼진 수는 9.73개일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대체선수대비 승리 기여도(WAR)는 1.1이다. 지난해 76경기에서 79%이닝을 소화하며 6승 3패 19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1.92

의 뛰어난 성적을 거둔 오승환은 올해 주춤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ZIPS는 오승환이 평균자책점 2.64, 탈삼진 18개, 볼넷 15개, 91닝당 탈삼진 11.27개, WAR 1.3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오승환은 올해 62경기에서 59 1/3이닝을 던지며 1승 6패 20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4.10에 그쳤다. 올 시즌 오승환의 WAR은 -0.1에 불과했고, 지난해 11.64개에 달한 91닝당 탈삼진 수는 8.19개로 줄었다.

오승환이 내년 시즌에 지난해만큼의 위력투를 보여주지 못해도 올해보다는 한층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뉴스1

러시아스키협회,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자국 선수들 "적극 지원"

러시아스키협회가 개인 자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자국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스키협회는 "인드레이 보카레프 러시아스키협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을 협회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6일 국가주도의 대규모 도핑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다만 도핑 규정 위반 이력이 없는 러시아 선수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IOC 집행위원회 결과가 발표된 후 신광민 대한스키협회장은 지난 12일 러시아 협회에 전서를 보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선수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